

무결점·무재해 안심일터 구현

아트원제지(주) 신탄진공장

각종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자원을 수입한 후 가공해서 제품을 만들고, 이를 수출하는 가공무역은 큰 발전을 해왔다. 이와 같은 가공무역에는 수많은 업종들이 포함돼 있지만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으로는 제지업을 꼽을 수 있다. 고급 종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악조건에서도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고품질의 종이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 바로 아트원제지(주)가 그곳이다.

이곳은 1971년 설립된 이후 한결같이 종이 생산에만 매진한 인쇄용지전문 생산기업이다. 그 명성에 걸맞게 첨단 생산 시스템과 기술력은 물론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평을 듣고 있다. 아트원제지(주)가 '안심일터'라는 명성을 쌓기까지 어떤 안전관리를 펼쳤는지 살펴봤다. 취재 김성태 기자 g1shu002@safety.or.kr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장차산업 특성상 이곳 현장에는 고속 초지기, 코터기 등의 설비가 들어서 있다. 또 생산하고 있는 제지 역시 무게가 상당하다. 이렇다 보니 근로자들이 회전체 등에 협착될 위험이 크다. 이에 아트원제지(주) 신탄진공장에서는 모든 기계설비에 센서 등의 안전장치를 부착해 놓아 위험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설비가 정지하게끔 조치했다. 즉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 것이다. 또 안전관리자들은 일일점검을 통해 안전장치의 부착상태와 고장 여부에 대해 철저히 확인해 나가면서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곳에서는 매일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그날의 상황에 따라 사고발생 위험이 큰 것은 무엇인지를 알려



근로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실로 작업현장의 안전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철두철미한 안전관리 전개

이곳 안전관리의 면모는 일일, 주간, 월간, 분기별 계획에 따라 빈틈없이 전개되는 안전 활동을 통해 제대로 엿볼 수 있다.

먼저 이곳에서는 ‘일일 안전담당제’를 시행해 현장 근로자들이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자연스럽게 안전에 관심을 갖도록 한 것이다. 단순히 이 정도에 머문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아트원제지(주) 신탄진공장 안전관리자들은 일일순찰을 통해 근로자들이 혹시라도 놓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나가고 있다. 또 공장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은 심야, 휴일 불시 점검을 통해 안전 상태를 살피고 있기도 하다. 그야말로 조금의 허של함도 찾아볼 수 없는 안전관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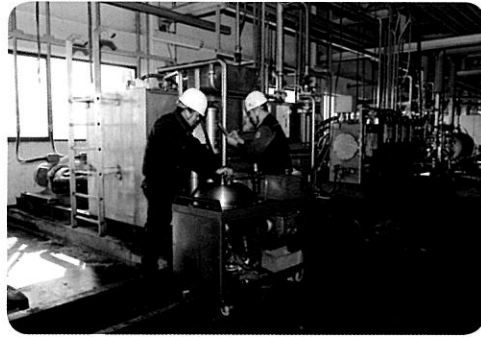
아울러 이곳에서는 매월 2회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캠페인을 실시해 안전의식 제고에 힘쓰는 한편 분기별로는 시설물, 기계·기구 등으로 테마를 정해 집중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안전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신입, 전입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안전 OJT’를 진행해 안전한 습관이 체화되게끔 교육하고 있다.

위험요소 원천차단

안전을 위협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도 이곳 안전관리의 핵심 사항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아트원제지(주) 신탄진공장에서는 ‘안전 TOP10’과 ‘3진 아웃제(안전 YELLOW CARD)’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안전 TOP10’은 각 파트별로 위험요소를 10개씩 발굴해 시정토록 한 것이다. 특히 사소한 것부터 예산이 소요되는 것까지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 무조건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근로자들을 대상으로는 ‘3진 아웃제’를 실시하고 있다.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불



안전한 행동을 하다가 적발됐을 경우, 처음에는 경고에 그치지만 두 번째에는 경위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또다시 지적사항이 발견됐을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는 안전관리업무가 맡겨진다. 즉 안전의 중요성과 사고 위험의 경각심을 동시에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안전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 생산

활발한 안전관리가 아트원제지(주) 신탄진공장에서 전개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곳 경영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트원제지의 경영 슬로건 가운데 최고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안전 최우선’일 정도다. 연 8회 모든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돌발작업과 관련된 작업표준 지침서를 제작·보급해 나가는 것은 회사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안전 창안제의 정착을 위해 인센티브 부여 등의 유도책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곳 경영진들이 얼마만큼 수준 높은 안전의식을 갖추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무재해 사업장 구현을 위해 회사의 모든 관계자들이 안전을 체화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는 아트원제지(주) 신탄진공장. 이곳의 안전관리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진다. ☺

mini interview



이동주 공장장

안전의 다른 이름 ‘천천히’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일터를 제공하고, 근로자는 노동력을 바탕으로 회사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 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겠습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소중한 인재를 잃어버리게 되고, 근로자들은 경제적인 기반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경영진에게 안전은 근로자들이 무사히 출근해서 아무 탈 없이 퇴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간다면 입사부터 퇴직까지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경영진들은 안전을 무엇보다 중시해야 합니다.

물론 경영진들에 의해서만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들은 ‘천천히’라는 마음가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일이 아무리 바쁘고, 귀찮다고 하더라도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스스로 작업을 잠시 중지하는 한편 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천천히 작업해도 안전만 확보될 수 있다면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